

호남 물갈이  
舊민주계 학살  
친노 부활  
梨大학맥 등장

# 민주 공천 내분 치달나

## 박지원 최고위원 등 당내 비판 쏟아져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공천에 대한 당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1, 2차 공천에 이어 지난달 29일 3차 공천 명단 발표 결과, 전·현직 의원과 친노·486 등이 대거 포함되었지만 구(舊) 민주계 의원들의 선거구는 경선 지역으로 선정되거나 전략공천에 밀려 탈락하면서 당내에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물갈이” 민주계 공천 학살 ‘친노부활’ ‘특정학과 인맥 탄생’ 등의 평가가 있는 것은 앞으로 총선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며 “이제라도 이러한 오해

가 없도록 재심과정에서나 또는 남은 공천과정에서 철저한 검토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발언은 그동안의 공천 과정에서 구 민주계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호남지역의 정서를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부겸 최고위원도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우리 당에 따가운 비판이 있다”며 “정치현실이란 논리로 변화와 개혁이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별문란 것 같은 민주당을 건진 것은 18대 총선 당시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의 엄격한 잣대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며 “나머지 공천이나 경선 과정에서 엄격한 잣대와 준비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공천과 관련된 경계 등이 도처에서 커지고 있다”며 “계파 간 야합, 지분나누기 식 단수공천, 친노의 부활, 이대 인맥 등장, 무차별한 단수공천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실이 아닌 것은 밝히고 사실이려면 지금이라도 즉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며 “특히 비판의 목소리는 최고위와 지도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심위에도 있다”고 비난했다.

잠재적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출연, 공천과 관련해 “감동이 없어서 국민이 많이 지지하는 것”이라며 “단수공천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엔 가능한 국민경선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특히 수도권이나 호남지

역에서 경선에서 승리하면 본선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아쉬운 측면이 있다. 향후 공천에선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날 발표된 3차 공천자 발표 결과, 단수후보 내지 경선 대상으로 선정된 38명의 후보 가운데 42.1%인 16명이 전·현직 의원이고 그 중 대부분이 친노인사였다. 반면 구 민주계의 중심인 한광욱(서울 관악) 김덕규(서울 중랑) 전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전·현직 의원 대거 공천은 호남공천에서 반대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개혁공천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가장 마지막에 발표할 호남 공천에서 칼자루를 과감하게 휘둘러 수 있다는 게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우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에도 현역 다 살았다

## 민주 3차 공천 발표... 김덕규·한광욱 탈락

민주통합당은 29일 4·11 총선에 나설 전국 23개 선거구의 3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도 현역 의원의 탈락은 없었다.

민주당은 이날 김상희 의원과 유승희 김영주 전의원,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안귀옥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 수도권 여성 후보 5명의 공천을 확정했다.

김진애·김영환·우제창·이석현·오제세 등 현역 의원 5명에 대해선 전직 의원 등과 양자대결로 경선을 치르도록 하는 등 18곳은 경선 후보를 선정했다.

서울에서는 마포갑에서 김진애 의원과 노응래 전 의원이, 강서갑에서는 신기남 전 의원과 김영근

전 한국NGO학회 사무총장이, 동작을에서는 이계안 전 의원과 허동준 동작을 당 지역위원장이 경선 후보로 선정됐다.

또 울산에서는 박인환 전 국민일보 편집국장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동갑에서는 이부영 전 의원과 송기정 당 지역위원장, 황희석 중소기업진흥기법 자원단장이 경선에 나서게 됐다.

인천 남동갑에서는 안영근 전 의원과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 경기 안산 상록에서는 김영환 의원과 임종인 전 의원, 용인갑에서는 우제창 의원과 조재현 전 경기도당 정책개발위원장이 대결하게 됐다.

안양 동안갑에서는 이석현 의원과 민병덕 민병 민생경제위 변호사가, 부천 원미에서는 살촌 전 의원과 한병환 부천노동법률상담소 상담실장이, 충북 청주흥덕갑에서는 오제세 의원과 손현준 전 충북대교수가 경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번 공천 발표에선 세대교체가 도드라졌다. 김덕규(서울 중랑), 한광욱(서울 관악) 전 의원은 이번 공천에서 탈락했다. 여성 공천자 할당 15% 이상을 충족시킨 점도 특징이다.

박원우 공천심사위원회 간사는 “공천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있다. 급하게 하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있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전략 공천·물갈이설 구 민주계 노심초사

민주통합당이 수도권과 영남권 등 일부 지역구에 친노(친 노무현) 세력과 486 운동권 출신 후보 위주로 공천을 확정할 가운데 예비후보 면접심사를 앞둔 광주·전남 구 민주계 인사들

# 광주·전남 탈락후보 무소속 벨트 만드나

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 혁명’의 잣대를 호남에 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천 탈락

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배수진을 치는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호남 공천에 따른 후유증이 예상된다.

29일 민주통합당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구 민주계 출신인 박주선(광주 동구), 김영진(광주 서구), 최인기(나주·화순) 의원이 공천에서 제외될 것인 말이 나오고 있다. 또한, 광주지역 8개 선거구 중 절반 가량이 전략공천될 것이라는 소문도 지역정가에 파다하게 퍼져있다. 이에 따라 구 민주계 출신 예비후보들은 당 지도부가 ‘공천혁명’을 명분 삼아 호남에서 친노 세력 등 ‘자기 사 람들’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특히 29일 한명숙 대표가 ‘투신 사건’ 발생 지역인 광주 동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거론하면서 구 민주계 출신 의원들과 광주지역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현재 공천 및 경선 확정자 대부분이 8년 전 열린우리당 출신 전 의원들이 재도전 기회를 얻고 있고, 수도권 등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재공천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왜 유독 호남만 물갈이를 강조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다른 예비후보는 “공천 칼자루를 쥔 당 지도부와 공천심사위원들의 면면이 주로 친노세력 등과 가까운 성향으로 구성되면서 구 민주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며 “광주·전남에서 구 민주계 인사들을 인위적으로 배제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한 광주 동구 박주선 의원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실제적 진실이 규명되면 정치적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지만 이번 사건을 옛 민주계 죽이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 무소속 벨트를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기저기서 선거인단 모집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암 덩어리(부작용을 일으키는 선거인단 제도)를 만든 중앙당이 특정 지역에 사 암덩어리 고를이 터졌다고 해당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뿐 아니라 전략공천설이 나돌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도 예비후보들이 무소속 출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누가 그걸 믿어줘야 말이지

- 김종두

## 민주, 단체장 경선 개입팬 강력 조치

민주통합당은 29일 4·11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거인단 모집 등에 개입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단체장들이 경선에 개입한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해야

한다”며 “이런 제보가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인 만큼 단체장의 엄정중립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요 제보 내용은 공직자를 동원한 선거인단 모집”이라며 “공정선거대책반을 발족해서 문제가 있으면 후보자격을 박

탈하고 단체장에게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공명선거대책반이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이런 문제는 광주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70531-총-359호

# “우울증”의 한방치료!

누구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와 상실을 경험하게 되며, 그 결과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에 젖게 된다. 여기서 우울이란 슬프고 침울한 마음으로 인하여 모든 생리 기능이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부분은 잠시 시간이 지나면 우울한 기분이 사라져 다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된다. 이처럼 좌절 경험후에 일시적으로 경미한 우울 기분을 느끼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며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항상 우울한 상태에서 쉽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점차 악화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울한 기분이 정제되어 발생하지 못해 일어나는 증상을 총칭하여 우울증이라 합니다.

우울증은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빠져들 수 있는 “인생의 늪”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음의 감기”라고 할 만큼 누구나 인생의 시련기에 경험하게 되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자살과 같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정신장애이기도 합니다.

##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 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제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치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울증 원인

- (1) 생물학적 원인 - 유전적, 체질적 원인
- (2) 사회적 원인 - 사회에서의 스트레스
- (3) 정신적 원인
  - ① 사려 과다나 실의, 비탄 등 정신적인 충격이 장기를 쇠약하게 하고, 그로 인해 氣血의 순행이 지체되거나 습열·식담 등이 정체되어 흡수·배설이 원활치 못 한데서 우울증이 생기게 된다.
  - ② 정신적인 요인 중에서도 특히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할 때, 즉 욕구불만이 쌓일 때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소심한 사람이나 내성적인 사람에게 흔히 나타난다고 하겠다.

### 우울증 증상

1. 계속되는 우울, 불안, 혹은 공허감
2. 절망적인 느낌, 염세적 사고
3. 죄책감, 무가치 혹은 무기력감
4. 성생활을 포함하여 한 때 즐거웠던 일이나 취미 생활에서 의욕 및 흥미상실
5. 불면, 아침에 일찍 깨어나 과도한 수면
6. 식욕 감소나 체중 감소, 과식이나 체중 증가
7. 힘이 없고 피로하며 몸이 처지는 기분
8.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기도
9. 초조감, 쉽게 짜증남
10.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의사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
11. 두통, 소화기 장애 또는 만성 통증 등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계속되는 신체 증상이 있을 때

### 우울증의 치료

치료원칙은 우울증의 병리기전에 의거하여 울결한 氣를 순조롭게 순환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화·담·적의 경중에 따라서 火를 끌어내린다든지 痰 또는 積을 없앤다든지 하는 방법을 배합한다.

한약처방으로는 소간해울탕, 귀비탕, 은당탕, 보혈안신탕, 조위승청탕, 소요산 등이 많이 활용된다. 침치료는 울체된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치료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경희 한의원) 전 선 형 원장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신화관 건너편

※ 주차장 완비 ※ 건물 옆 패밀리카터기